

2009년 10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1,227조회)

나잇값
年甲斐

“머리가 굳어서.”
“頭が固くて”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불명예스런 딱지 가운데 하나다.
これが歳をとった人の不名誉なレッテルの中の一つだ。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에다. 굳어 있다면 허리나 관절이지
結論から言えば、(笑止)千万だ。固くなれば、腰や関節で

머리는 아니다. 가끔 나이 든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그런
頭ではない。たまに歳をとった人が、意地を張れば、そのように

식으로 폼하하지만, 이것도 원래 완고한 성격 탓이지
けなすが、それももともと頑固な性格のせいだろう

나이가 죄는 아니다. 뇌의 '유연성' 측면에선
歳が罪ではない。脳の'柔軟性'の側面からは

고령자가 오히려 젊은층을 압도한다.
高齢者がむしろ、若者を圧倒する。

나이 든 뇌는 나잇값을 한다.
年をとった脳は年甲斐を持つ。

- 이시형의《에이징 파워》중에서 -
- イ・シヒョンの<エイジングパワー>より -

* '나이가 들수록 뇌가 유연해진다.'
* '歳をとるほど、脳が柔軟になる'

매우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とても希望的なことです。そうにもかかわらず、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年をとるほど、頭が固くなっていく人が多いです。

때문에 생각조차 완고해져, 더욱 고집스러워지고
そのため考えさえ、頑固になって、さらに固執するようになり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삐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小さなことに振り回され'へそを曲げる'場合も多いです。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뇌를 잘 다스려야
頭が固くならないように脳を収めてこそ

나잇값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年甲斐をまともに(価値あるものに)できます。

나잇-값
[명사] 「年齢にふさわしい言葉や行動」をたどって言う語·年甲斐。
굳다1

<1> [자동사] (物が)固くなる;(やわらかいはずのものが)こわばる。

<2> [자동사] (くせ・習慣などが)固まる;癖になる。

불명예-스럽다 [不名譽-]

[형용사] 不名譽である。

딱지 [一紙]

<1> [명사] 切手や証紙, またはマークが入っている紙切れ(札・ラベル・レツテルなど)。

<2> [명사] 面子。

고집 [固執]

[명사·하다형 타동사] 固執;かたく自分の意見を守って曲げないこと;我;意地。

부리다2

<1> [타동사] (荷物を)下ろす;荷おろしをする。

<2> [타동사] 弓弦をはずす。

완고 [頑固]

[명사·하다형 형용사] 頑固;かたくなでなかなか自分の主張を曲げようとしないうさま。

남의 작품을 폄하다. → 폄:

他人の作品をけなす。

유연 [柔軟]

[명사·하다형 형용사] 柔軟。

측면 [側面]

[명사] 側面。

<1> [명사] 物体の上下・前後以外の面;左右の面。

젊은층 若者

빼:치다1

[자동사] (疲れきって)へこたれる;へたばる。

다스리다

<1> [타동사] (国家・社会・家庭などを)治める;統治する;支配する。

<2> [타동사] (混乱した状態を)収める;鎮める;收拾する。

2009년 10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1,239조회)

오감(五感), 십감(十感)

커피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コーヒーの話を聞けば

오감을 사용해야 한다네.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五感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ぬ、視覚、触覚、味覚、臭覚、聴覚

모두를 말아야. 아! 커피도 그럴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すべてをだ。あ、コーヒーもそうだが、人間関係も同じだ。

좋은 친구 사이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오감을 집중하는 습관을
いい友達の間柄になれば、相手方に五感を集中する習慣を

들여야 한다네. 오감으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つけなければならぬ。五感で聞いたことは、心の門を

연다는 것이지. 그래야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네.
開くだろうということだ。そうしてこそ、共感できるという意味だ。

공감하고 소통해야 비로소 좋은 친구가
共感して、疎通してこそようやくいい友人が

될 수 있다는 뜻이지.
できるという意味だろう。

- 스탠 톨러의《행운의 절반 친구》중에서 -
- ステン・トラーの<幸運の半分は友達>より -

*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는
* 本当の共感と疎通のためには

오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감이어야 합니다.
五感だけでは、不足です。十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의 오감은 기본이고
視覚、触覚、味覚、臭覚、聴覚の五感は基本であり

보지 않고도 마음을 보고, 듣지 않고도 소리를 듣고,
見なくても心を見て、聞かなくても声を聞いて、

손대지 않아도, 맛보지 않아도 그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触れなくても、味を見なくても、その喜びと悲しみをわかって...

좋은 친구, 행운의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いい友人、幸運の友人をえるということは、このように

안에 숨겨진 십감까지를 동원하는 일이며
中に隠した十感までを動員することであり

자신의 전인격을 거는 일입니다.
自身の全人格をかけることです。

커피 [coffee]

[명사] コーヒー。

촉각 [觸覺]

[명사] 『생물·생리』觸覺;動物の体表に物が触れたときに生じる感覺。

후각 [嗅覺]

[명사] 『생물·생리』嗅覺;臭覺。

공감 [共感]

[명사·하다형 자동사] 共感;同感。

소통 [疏通·疎通]

[명사·하다형 자동사] 疎通。

<1> [명사·하다형 자동사] (とどこおりなく)よく通じること;(物の)流れ;通り。

절반 [折半]

[명사] 折半。

<1> [명사] 半分;二分の一。

인격 [人格]

[명사] 人格。

<1> [명사] 人の性格;人の品格;人柄。

(Stan Toler)

ステン・トラー??

2009년 10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1,113조회)

나침반
羅針盤

아인슈타인은 노년에
アインシュタインは老年に

'나의 부고'라는 짤막한 글을 쓰면서
'私の訃告'という短い文を書きながら

아버지가 나침반을 처음 보여주었던 때를 회상했다.
父が羅針盤を始めて見せてくれた時を回想した。

어느 쪽으로 돌려도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모습이
どの方向に回しても、羅針盤の針がいつも北側を示す姿が

어린 소년의 눈에는 무척 신기하게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幼い少年の目には、とても不思議に見えた。アインシュタインは、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このように書いた"私は今も、生々しく記憶している。

그때 그 경험은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そのとき、その経験は私に永遠に消えな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深い印象を残してくれた。事物の裏には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
必ず、奥深い隠された何かがある"

- 조지 존슨의《세상의 비밀을 밝힌 위대한 실험》중에서 -
- ジョージ・ジョンソンの<世界の秘密を明らかにした偉大な実験>より -

* 아버지의 나침반이
* 父の羅針盤が

아인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アインシュタインを作りました。

아버지가 건네준 책 한 권, 꿈이 담긴 말 한 마디가
父が渡してくれた本1冊、夢が詰った言葉1つが

아들딸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息子、娘には人生の羅針盤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 자식들의
いいえ。父はその存在だけで子供たちの

나침반입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도
羅針盤です。どの方向にまわしても

희망의 북극성을 가리키는...
希望の北極星を指し示す...

나침-반 [羅針盤]

[명사] 羅針盤;コンパス。

부:고 [訃告]

[명사·하다형 자동사] 訃告;訃報;訃音。

짚막-하다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長さが)やや短い。

가리키다

<1> [타동사] (言葉·表情·動作などで)指す;指し示す;指さす;示す。

<2> [타동사] (記号や器具などで)方向や時刻などを知らせる;示す。

적다

[타동사] 書く;書きとめる;記録する。

이:면 [裏面]

[명사] 裏面。

<1> [명사] 内;裏;中。

깊숙-하다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奥深い;底深い;深くひっそりしている。

담기다

<1> [자동사] ‘담다’의受動:(器に)盛られる;入る。

<2> [자동사] (情などが)こもる。

조지·존슨(George Johnson)

2009년 10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6,231조회)

당신의 집에 있다
あなたの家にある

“당신 자신을 위해서
“あなた自身のために

생산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生産できるただ一人の人間は、まさにあなただ。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困難から、逃れたければ、あなたがすでに持っていることを

사용해야 한다. 해답은 바로 당신의 집에 있다.
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解答はまさにあなたの家にある。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それを使えば、よいだろう”

- 단 카스터의《정신력의 기적》중에서 -
- ダン・カスター〈精神力の奇跡〉より -

* 행복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 幸せも違うところありません。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 안에 있습니다.
あなたが今留まっている、その家の中にあります。

성공도 당신의 손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成功もあなたの手の中に、その解答があります。

사랑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愛も遠いところありません。

당신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あなたが会う人の中に

사랑이 있습니다.
愛があります。

생산 [生産]
[명사·하다형 타동사] 生産。
<1> [명사·하다형 타동사] 生活に必要な物を作り出すこと。
오; 직
[부사] ただ;ひたすら;専ら;ひとえに;ひとすじに。
해;답 [解答]
[명사·하다형 자동사] 解答;答え。
머물다
[자동사] ‘머무르다’の縮約形。
머무르다
<1>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止まる;停止する;停泊する。
<2>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一定の所に)とどまる;居残る。

단 카스터(Dan Custer)
ダン・カスター

2009년 10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135조회)

'시루논'
こしき(そこの抜けた)の田んぼ

작물은 저마다 좋아하는 토성이 있다.
作物はおのおのに、好きな土壌がある。

예를 들면 벼는 식토를 좋아하고, 수박은 사토를
例を挙げれば、稲は埴土を好み、スイカは、砂土を

좋아한다. 수박을 식토에 심거나 벼를 사토에 심으면
好む。スイカを埴土に植えたり、稲を砂土に植えれば

아무리 애써봐도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없다.
いくら、骨を折ってみても収穫をたくさん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

모래 논을 '시루논'이라 하는데 마치 시루에
砂の田を'こしきの田んぼ'というが、まるで、こしきに

물 빠지는 것처럼 물이 쓱쓱 빠진다 해서
水を注いだように、水がすすると流れてしまい

붙여진 이름으로 논으로는 빵점이다.
つけられた名前で、田んぼとしては0点だ。

- 이완주의《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중에서 -
- イワンジュの<土を分かってこそ農家が生きる>より -

* 사람도 '시루논'과 같으면 곤란합니다.
* 人も'こしきの田んぼ'と同じならば困ります。

사랑을 장대비처럼 쏟아부어도 다 흘러보내고
愛を大雨のように降り注いでも、すべて流れ出れば

진정 어린 말도 다 놓쳐버리면, 정말 빵점입니다.
本当に思う言葉も、すべて逃してしまえば、本当に0点です。

작은 사랑과 관심,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小さな愛と関心、過ぎ去る言葉一つも、逃さないで

자기 마음의 논에 잘 담아, 더 큰 감사와 풍요로움으로
自分の心の田んぼによくこめて、さらに大きな感謝と豊かさで

수확하는 삶이어야 백점짜리 인생입니다.
収穫する一生こそが、100点の価値ある人生です。

'시루논'은 아니되었습니다!
'こしきの田んぼ'は、ダメですよ!

시루
[명사] こしき;せいろ;蒸し器。

논
[명사] 田;水田;たんぼ。

저-마다
<1> [부사] 人毎に;おのおの;各自;口々に。

<2> [부사] (名詞的に)各自;おのおの。

おお-ぼねを折る

《「骨を折る(고생을 하다. 애쓰다)」의 힘줄말》 큰 고생을 하다. 굉장히 애쓰다.

모래

[명사] 砂。

すく-すく

[부사] 《「と」의 꼴로도 씀》

1. [부사] 나무가 잘 자라는 모양. 쑥쑥.

빵-점

[명사] (試験などで)零点;ゼロ。

しゃ-じくを流すような大雨 → しゃ-じくを流す

역수로 퍼붓는 장대비.

쏟다

<1> [타동사] こぼす;流す;明ける。

<2> [타동사] (血や涙などを)流す;出す;こぼす。

붓다2

<1> {타동사·스 불규칙활용} 注ぐ;つぐ;差す。

<2> {타동사·스 불규칙활용} (種などを)すき間なく播くこと。

水をで-ほうだいにする → で-ほうだい

물을 그냥 흘려 보내다.

흘리다

<1> [타동사] (汗や血などを)流す;零す。

<2> [타동사] (うっかりして水やご飯つぶなどを)漏らし落とす;零す。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담:다

<1> [타동사] (器に)盛る;よそう;入れる。

<2> [타동사] (うわさ, 悪口などを)口にする;口に出す;話題にする。

2009년 10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292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최현정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ェ・ヒョンジ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心を認めるただ一人の人

오늘은 문득
今日はふと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ヘーゼルナッツコーヒーを1杯飲みながら

닫혀 있던 가슴을 열고 감춰 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閉じていた心を開き、隠してきた言葉をいいたい人が

꼭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一人いたら、よかったという思いをした。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つらかった記憶を話せば、私がそばにいるよという人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 주는 사람
離別を話せば、露(のように涙を)溜めた目で見てくれる人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지는 사람
希望を話せば、夢にそまって幸せになるひと

힘한 세상에 굽이마다 지쳐 가는 삶이지만
限りある世界に曲がり角のたびに、疲れていく人生だ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たまに、茶1杯の余裕の中に、悲しみを分けて飲むことができる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心を認めるただ一人の人

- 배은미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詩 중에서 -
- ペ・ウンミの<心を認めるただ一人の人> 詩より -

* 헤이즐넛 커피향이 더욱 그윽해지는 완전한 가을입니다.
* ヘーゼルナッツコーヒーの香りが、いっそうになる、はつきりあらわれる秋です。

이번 주말엔 고요히 찻잔을 마주하고 사랑, 이별, 희망,
今度の週末には、静かに茶碗と向かい合って、愛、離別、希望、

꿈을 나누었던 벗들을 떠올리며 '가을편지'를
夢を分けた友たちを思い浮かべながら'秋の手紙'を

띄우려고 합니다. 함께 마주했던 그 때처럼
送ろうかと思えます。一緒に向かいあったそのときのように

지금도 변함없이 마음을 알아주는
今も変わりなく、心を認める

단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ただ一人の人になりたいです。

좋은 글 주신 최현정님께
いい文章を下さったチェ・ヒョンジョン様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문득

[부사] (考えや感じなどが)突然起こるさま:ふと;はっと;ひょいと。

이슬

<1> [명사] 露。

<2> [명사] 涙をたとえて言う語。

고이다1

[자동사] ⇒괴다1

괴:다1

[자동사] (水などが)溜まる;澱む。

젖다1

[자동사] (後ろに)傾く;反る。

젖다2

<1> [자동사] 濡れる;湿る。

<2> [자동사] (ある状態に)浸る;染まる。

굽이

[명사] 曲がり角;湾曲した所。

지:치다1

[자동사] (力のいる仕事や苦しみなどで)疲れる;へとへとなる;くたびれる;飽き飽きする

서:러움

[명사] 悲しみ。

나누다

<1> [타동사] 分ける;分割する。

<2> [타동사] 分ける;分類する;区分する;区別する。

더욱

[부사] もっと;さらに;なお;一層。

완연-하다 [宛然-]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はっきり現れる。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そっくりそのままである。

고요-히

[부사] 静かに;穏やかに;安らかに。

차잔을 부시다. → 부시다1

茶碗をすすぐ。

마주하다 向い合う

벗:2

[명사] 友。

<1> [명사] 友達;友人;朋友。

떠-오르다

<1> {타동사·르 불규칙활용} 浮き上がる;浮かび上がる;昇る。

<2> {타동사·르 불규칙활용} (考え・記憶などが)浮かぶ;よみがえる。

띄우다1

[타동사] (手紙などを)送る;出す。